

<5주차 강의>

이성적 인간(homo rationalis) 2

이상국가와 철인왕

★ 차례

1. 정의란 무엇인가?
 2. 국가의 정의
 3. 개인의 정의
 4. 이상국가와 철인왕
- ★ 다시 이성적 인간은 무엇인가?

1. 정의란 무엇인가?

인간영혼	인간신체	국가계급	덕목
이성	머리	지배자 (통치자)	지혜 sophia phronesis
기개	가슴	전사	용기 andreia
욕망	배	생산자	절제 sophrosyne

[표] 인간 영혼 및 신체와 대응되는 국가 계급의 덕목

1. 정의란 무엇인가?

※ 정의(dikaiosyne)란?

- 보통 평등, 공정, 자기 자신의 것(몫)을 소유함을 의미
- 영어 justice보다 righteousness(올바름)에 가까운 개념
-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도덕성, 적절성을 의미
- 특히 플라톤은 정의(올바름)를 기능적 관점에서 설명함



1. 정의란 무엇인가?

※ 덕(탁월성, arete)이란?

- virtue, 德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개념
- 기능적 탁월성, 뛰어난 의미를
-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아레테라는 개념에 도덕적 성격을 부여함
- 정의(올바름)도 일종의 아레테임

ἀρετή

2. 국가의 정의

- 국가 구성원, 즉 시민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국가의 정의
- 정의는 국가의 덕(탁월성)을 실현하는 데 지혜, 용기, 절제와 함께 작용하지만 그 기여도와 비중이 가장 큼

2. 국가의 정의

- 국가(폴리스) 내의 생산자, 전사(군인), 지도자 계급은 국가 전체의 매킨니즘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파악해야 한다.
- 국가 전체의 매킨니즘에서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원리가 필요하다.
- 정의의 원리에 따라 욕망추구 집단(생산자)은 절제의 덕을, 명예추구 집단(전사)은 용기의 덕을, 이성적인 자들은 지혜의 덕을 갖출 수 있다.
- 세 집단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국가는 전체로서 정의롭게 된다.

3. 개인의 정의

- 개인 영혼은 국가의 세 계층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
- 정의의 원리가 없다면, 지혜롭지만 용기가 없는 영혼, 용기는 있지만 무절제한 영혼이 나올 수 있음
- 영혼의 세 부분이 각자 교유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원리가 반드시 필요함
- 정의는 욕망의 부분에는 절제를, 기개의 부분에는 용기를, 이성의 부분에서 지혜의 탁월성을 성취하게 함
- 따라서 정의의 덕(탁월성)은 영혼 전체의 덕(탁월성)이라 할 수 있음

3. 개인의 정의

※ 플라톤 정의관의 사회성

- 개인의 정의, 즉 영혼의 내적 조화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적실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유기적으로 연관됨
- 개인의 정의는 국가적으로는 폴리스 내에서 각자의 역할 수행, 즉 생산과 소비의 삶, 군인의 삶, 철인의 삶을 조화롭게 수행하게 함
- 개인 정의의 실현은 폴리스라는 공동체 질서에서의 참여를 요구함

4. 이상국가와 철인왕

(1) 존재론적 구도

- 현상계와 실재계의 구분이 통치자 집단과 생산(소비)자 집단, 지배와 피지배의 구분으로 이어짐
- 지도자(통치자) 집단: 이성을 소유한 지혜로운 자(이성적 삶을 살아가는 주체). 국가의 영혼이며, 이성
- 생산자 집단: 생존과 욕구의 충족에 충실한 집단, 농부, 기술자, 상인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물질적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부류. 지식이 아니라 믿음과 욕망의 삶을 사는 집단

4. 이상국가와 철인왕

(2) 교육의 강조

-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국가의 목표는 인간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일이며, 이러한 일은 교육을 통해 가능하게 됨
- 플라톤의 교육론은 교육제도보다는 교육과정과 내용에 강조를 둠
- 교육의 핵심목표 가운데 하나가 참된 지식과 진리를 파악하는 자, 즉 철학자를 양성하는 것이다. 이 때문에 통치자 집단의 양성을 위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부각됨

4. 이상국가와 철인왕

- 통치자를 위한 교육

소년들 중에 가장 강건하고 용맹스러우며 학업에 우수한 자들을 뽑아서 2, 3년간 체육 훈련을 시킨 다음 가장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산수와 기하학, 그리고 음악, 천문학 등 여러 학문을 가르친다. 20세에 이르렀을 때 그들 중 우수한 자를 뽑아서 그때까지 두서없이 가르쳤던 것을 그 전체의 관계가 한눈으로 들어오도록 체계적으로 가르치고, 존재(실재)의 본성도 알게 한다. 30세가 되면 그들 중 학문과 전투와 그 밖의 여러 훈련에서 가장 탄탄하면서 전체를 한눈에 보고[synopsis] 존재 자체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 자들을 뽑아서 35세까지 변증법을 강도 높게 훈련시킨다.

4. 이상국가와 철인왕

- 통치자를 위한 교육

그 과정이 끝나면 다시 사회에 내보내 전쟁에 관한 일이나 나라의 여러 일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경험을 쌓게 한다. 거기서 다시 한 번 온갖 종류의 유혹에 굳건히 견딜 수 있는가를 시험하고, 50세가 되면 영혼을 열고 모든 것에 빛을 주는 존재로 그 시선이 향하게 한다. 그래서 그들이 선의 이데아를 파악했을 때, 그들은 전 국가의 모범으로 삼으며 남은 생애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철학에 바치게 한다.

4. 이상국가와 철인왕

- 지천명과 인생의 7단계

“나는 나이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(吾十有五而志于學), 서른에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(三十而立), 마흔에는 미혹되지 않았고(四十而不惑), 쉰에는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며(五十而知天命), 예순에는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곧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되었고(六十而耳順), 일흔이 되어서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(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)” - 논어(論語)』, <위정편(爲政篇)>

4. 이상국가와 철인왕

(3) 철인왕이 다스리는 국가

- 철인왕은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, 선발, 교육, 양성된다.
- 철학적 지성과 정치적 통치력을 갖춘 철인왕만이 이상국가를 다스릴 자격이 주어짐.
- 철인왕은 통치자인 동시에 위대한 교육자로서 시민들의 영혼을 관리, 교육하는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됨



★ 다시 이성적 인간은 무엇인가?

- 플라톤에게서 인간의 참된 모습은 육체의 혼란을 극복하고 이성적 질서의 길로 나아가는 것
- 이성적 질서의 길이란 인간의 진정한 본성을 실현하는 길
- 결국 플라톤에게서 이성적 인간은 진리탐구의 주체, 윤리적 행위주체로 자리매김됨